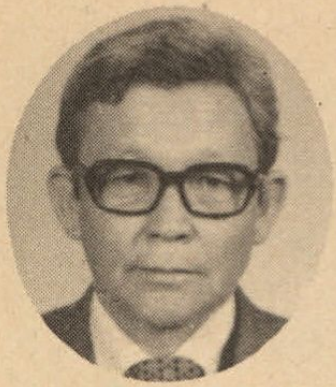




인성의 갈길

교장 김 덕 용

이번에 發刊하는 校誌 17호는 開校 35週年을 紀念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82년에 16집을 내 놓은 지 5年만의 일이라 오래간만이기도 하겠으나 設立者와 理事長과 理事 등 主役들이 돌아가시거나 바뀌어서 三十餘年間을 걸어오던 외길 한가운데 서서 한 번쯤은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는 轉換의 時点으로 삼고 이「卷頭辭」를「卷頭史」적 見地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一. 胎動과 出生

「이 民族을 바로 잡아 高尚하고 品格높은 國民으로 聖化시키려면 基督教教育보다 더 효과적이고 價値있는 運動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設立者 仁川 第一教會 故 李基赫 牧師가 現「仁聖의 터」에 세운 것이 仁聖學校입니다. 「教會가 幼稚園부터 大學까지 세워 많은 人材를 길러」내려던 것이 그분의 끊임없는 祈禱였습니다.

57年 當時의 大統領이 仁川市廳에 오신다던 날, 全校生이래야 고작 94명이 걸음마를 하고 첫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학교마다 千名에 가까운 學生들을 이끌고 나와 道路 양쪽에 늘어서서 太極旗를 흔들었는데, 지나가던 大統領이 마치 우리 仁聖出身이나 되듯이 歡聲을 질러대는 극성스러웠던 우리 學生에게, 規模의 초라함에 萎縮돼 있던 나의叱責어린 挽留에「우리가 百名도 안되는 數이지만 他校生과 어깨를 나란히 仁聖學生의 구실을 하는데요. 선생님 얼마나 신나요.」라고 대답하던 학생들의 빛나던 눈동자들은 젊은 教師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召命의 불씨를 심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部族들 가운데서 보잘 것 없으나…… 그의 힘이 땅끝까지 미쳐 모두 그가 이룩한 平和를 누리며 살리라.」

聖經에 根源을 둔 仁聖의 뿌리는 깊이 뻗고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信仰」과 거침없는「自由」와 아낌없는「奉公」의 딸들이 되어서 世上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二. 成長과 發展

58年 이른 봄 처음으로 8教室짜리 新築敎舍가 落成되었습니다. 내 집을 갖는 기쁨! 또 한번 극성스러운 기쁨의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66年에 18教室짜리 高等學校 建物인 本館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줄금줄금 지어온 우리 學校建築工事들 가운데 가장 큰 建築工事였던 것 같은데 적은 살림을 모으고 모아서 増築에 増築을 거듭했으니 35年間に 일곱번의 建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外部로부터 손님을 請해 모시고 잔치다운 잔치 한번 못해 보고 우리 네끼리 “昨年엔 本館 4層 屋上에서 했으니 今年의 送舊迎新의 祈禱會는 新館 4層에서 해야지” 라면서 새로 지은 室·房을 찾아 다니며 해마다의 懇切한 連禱로 새해를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손도손 큰소리 내지않고 細心한 精誠을 學生마다 구석마다에 쏟아 온 것이 仁聖의 敎育, 그래서 母校를 찾았던 卒業生은 그 感懷속에 「雄壯하지도, 華麗하지도 않은, 가난하고 불품없으나, 오손도손, 웅기종기 智慧로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별처럼 오늘도 빛나고 있네」 라고 한결 같은 사랑의 仁聖동산을 詩로 읊었습니다.

이렇게 成長한 仁聖의 모습은 肥大의 印象을 풍기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着實히 자란 仁聖은, 늘 지켜보지 못하고 떠나 있던 사람에게서나 “야! 仁聖이 이렇게 자랐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仁聖은 흠없고 으젓할 뿐입니다. 草創

의 극성스러움도 脫皮했습니다. 참길인 眞理, 그 속에서 生命이 鼓動치는 脈搏, 成長만이 아닌 發展을 해왔습니다. 너무 儀式的이거나 소위 民族的 또는 地域的이거나 教育的 치우침에서 벗어나 普遍妥當性を 正直으로 지키게 하려는 教育, 이것이 「仁聖의 教育」 또는 「發展하는 仁聖」입니다.

三. 平準化의 激浪

仁聖의 眞珠가 仁川社會에 그 빛을 밝히기 시작했던 69년에 中學校가 그리고 74년에는 高等學校가 平準化되었습니다. 꼭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던데 제 나름의 特性을 가진 學生들을 抽籤으로 맞이하여 仁聖人으로 키웠습니다. 「예수를 만나 본 仁聖의 딸」들을 「他意」에서 「自意」로 돌리는 것이 仁聖 教育이었습니다.

競爭의 거센 물결은 높아만 갔는데 試驗공부란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들을 대하고 보면, ‘基督教 教育’이란 생각과 입에서만 오르내렸습니다. 하루의 일곱 時間 授業을 하고도 앞뒤로 그 만큼의 「補充이다 自律이다」의 걸다리 時間을 試驗準備로 나날을 쌓아가면서 그런 類의 공부에만 「안간」 힘을 다해야 했으니 信仰指導에야 「간」 힘이 있겠습니까.

35年の 傳統을 내세웁니다. 英語의 「Tradition」말입니다. Tradition이란 Trader의 「발길」이었다는데 Trade나 Tread는 同義語源이라서 녀를 잃고 가다가는 그만 Tread가 「Treason」으로 Betray 하여서 「傳統」아닌 「背叛」의 늪에 빠져 있거나 앓나 하고 두루 살펴 보자는 것입니다.

四. 가던 그 길

17집을 35週年 紀念으로 냅니다. 단순한 7분의 1의 5년만은 아닙니다.

設立者도 떠나시고 理事長도 바뀌고 理事도 바뀌고 그리고 中.高의 校長도 바뀌었습니다. 學生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밖에 있던 財産을 팔아서 안에다 아담한 敎舍를 여덟번째로 지어가고 校地도 整理하고 있습니다. 民主化란 거창한 口號가 아니더라도 大學入試 制度도 바뀔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으로 大統領을 直接 選出하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거세어도 사람과 制度가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被造物, 내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로, 그가 주시는 힘으로 이룩한 배움으로 平和를 누릴 것을 믿고 처음부터 걸어오던 그 외길을 계속 하는 것이 「仁聖의 갈 길」입니다. 〽